

한나라發 정계개편 예감

지도부 봉괴…재창당·신당·탈당설 난무



동반사회 3인

한나라당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왼쪽부터) 3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각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제는 계파 간, 세력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 힘들다는데 있다.

특히 박 전 대표에 이어 정봉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의원 등 잠룡들이 논의에 가세할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당내 대선후보 경쟁이 조기에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향후 당의 진로를 둘러싼 쟁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여권 전체가 핵분열의 길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14년 된 한나라당이 해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당내에선 재창당론과 탈당론, 신당론이 무성하다. 한나라당 간판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만큼 당 해체 후 재창당하거나 아니면 한나라당을 떠나 새로운 동지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최고위원을 포함해 수도권 출신이 주축이 된 의원 10명은 전날 모임을 갖고 “한나라당이 해산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재창당까지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도 재창당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수도권 몇몇 쇄신파 의원들 사이에 변화의 희망이 없으면 결국 탈당밖에 없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내 한 중진의원 중심의 신당설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즉각 사퇴하지 않더라도 오래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홍준표 체제’ 이후의 당을 어떻 게 꾸려갈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내에선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형식을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이나 아니면 곧바로 내년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이나, 이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 3인의 7일 전격 동반사회로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 3인의 사퇴는 ‘홍준표 체제’ 봉괴를 의미하는 동시에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당 전면 복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당 내부의 상황과는 별개로 내년 4·11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의 여권 지도부 교체는 총선과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권이 만약 재창당 수순으로 갈 경우 ‘해체 모여’ 속에 일부 이탈세력이 발생하면서 여권발(發) 정계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즉각 사퇴하지 않더라도 오래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홍준표 체제’ 이후의 당을 어떻

게 꾸려갈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내에선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형식을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이나 아니면 곧바로 내년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이나, 이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등판 임박

비대위원장 맡아 당 쇄신·변화 주도 할 듯

지 당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당내 대체적 기류여서 박 전 대표의 등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3인의 무더기 사퇴 소식을 듣고 조기등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측근 의원은 “홍 대표가 당장 사퇴하면 당 수습이 오히려 불가능 하다”며 “박 전 대표가 당의 대권주자임은 부인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타이틀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

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 국회가 끝나면 박 전 대표가 수차례 말한 대로 재창당 수준의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이다. 홍 대표가 잘 마무리해주고, 박 전 대표가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전 대표가 예산 국회 이 후 전개될 당의 쇄신 국면에서 당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상으로는 당헌당규 상 비상 대책위가 구성될 경우 박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맡아 당의 쇄신과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

망이다.

다른 측근 의원은 “현 지도체제 봉괴를 전제한다면 선택지는 ▲비대위원장 ▲당 해체 후 재창당 ▲조기 총선 선대위 구성 등 3가지일 것”이라며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비대위 구성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구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박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는 것은 해법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당 해체 후 재창당이라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특자

- ◆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 유치권 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공무원 특별자금

- 주조회 기획서비스 | 개인사업자 관리 청탁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1억원~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 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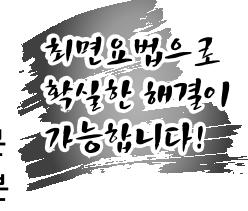
대출한도 실거래율은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빙의·신병)

-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 불면증 / 학습증진
- ◆ 기억력 회복 / 주변이 심하신 분
-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빙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 가능)
-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0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용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540호)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 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놓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주)칠만공사 / 칠만표 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

적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또는 특검까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애초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토해보자는 유보적 입장이었지만 안일한 대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충체적 위기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만간 회동해 디도스 국조와 특검 실시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나 의혹만으로도 뭔가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조나 특검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만간 회동해 디도스 국조와 특검 실시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디도스 사태’ 국조·특검 가능성

野 요구 與도 “협의” 피력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태가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태 직후 민주당이 국조와 특검을 요구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디도스 사건에 대한 국민

적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또는 특검까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애초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토해보자는 유보적 입장이었지만 안일한 대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충체적 위기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만간 회동해 디도스 국조와 특검 실시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정부원 의원의 수행비서인 김모씨는 25일 술자리 1차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 의원실 비서 김씨도 함께 소환해 술자리에서 오간 얘기, 왜 2차를 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경찰이다.

/연합뉴스

경찰 “공씨, 국회의장 비서와 6차례 통화”

10·26 재보선날 중앙선관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시지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모씨가 범행 시간대에 공격을 실행한 강모씨 외에 박희태 국회의장실의 행사의장 비서 김모씨와 6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경찰조사에서 공씨가 범행 당일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강씨 외의 인물 2명과 2통, 7시부터 9시까지 1명과 6

7일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중앙선관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시지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비서 김모씨는 25일 술자리 1차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 의원실 비서 김씨도 함께 소환해 술자리에서 오간 얘기, 왜 2차를 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경찰이다.

/연합뉴스

민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십자포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관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단행되었던 시간대인 10월26일 재보선 당일 오전 7~9시에 박 의장실 비서 김모씨와 6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경찰조사에서 공씨가 범행 당일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강씨 외의 인물 2명과 2통, 7시부터 9시까지 1명과 6

7일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중앙선관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시지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비서 김모씨는 25일 술자리 1차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 의원실 비서 김씨도 함께 소환해 술자리에서 오간 얘기, 왜 2차를 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경찰이다.

/연합뉴스

원총회를 한 것으로 나타난 기록 중 아침 시간의 6통의 통화가 김씨와 이뤄진 것이다.